



## 중국, 홍콩, 대만발 호주향 수송 권운임 인상 9월15일부터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50달러

아시아와 호주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항로의 운임이 인상됐다.

중국, 홍콩 및 대만에서 호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운임은 9월15일부터 TEU당 350달러 인상됐다.

이에 앞서 이 항로에 취항중인 13개 회원사로 구성된 Asia-Australia Discussion Agreement(AADA)는 또 8월15일부터 성수기 할

증료로 TEU당 250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및 인도에서 선적돼 호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운임도 TEU당 275달러가 인상될 전망이다.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회원사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운임인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TFA는 또 8월21일부터 성수기 할증료로 TEU당 15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 DNV 선박연비 10% 절감 에너지관리계획 개발 추가 장비 설치없이 분석시스템 활용으로 가능

노르웨이선급(DNV)이 선박연료비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계획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DNV Henrik Madsen 회장은 9월6일 대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선사들에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세계 해운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DNV는 선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한다”며, 자사의 에너지 관리계획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DNV의 에너지 관리계획은 하드웨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시스템을 사용해 선박 에너지 이용 특성을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주는 50가지 요인, 이를테면 연료의 품질, 주유계획, 선박운영전략, 항로계획, 선박속도, 주

엔진 효율성 등을 분석해 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Madsen 회장은 연초부터 유럽 선사들이 DNV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관리계획을 이용했으며, Stolt-Nielsen사의 경우 에너지 관리계획 도입 이후 연료 소모량이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그는 아울러, 고정된 항로를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 이를테면 컨테이너선의 경우 연료 절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tolt-Nielsen사의 Jens Lassen 사장은 향후 5-6년 가량 매년 10%씩 연료 소모를 줄일 경우 신조선 1척의 선가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